

부자유친성정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이장주[†] · 최상진
명지대학교 ·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부모-자녀관계 이론이 관계주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문화의 실정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착안하여, 그 대안으로 구성된 최상진(1994, 1999, 2000a)의 '부자유친성정'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의 밀착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제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예비연구를 포함한 3개의 하위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우선 예비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의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목록을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 1에서는 예비연구 목록을 이용해 척도화를 실시하였다. 척도화를 통해 각각 20개의 문항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들 문항은 '신뢰성'요인과 '헌신성' 요인 등 2개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GFI가 모두 .90을 넘는 양호함을 보여주었으며,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한 하위 요인들의 반분신뢰도 검사에서 .75에서 .87까지의 양호한 신뢰도로 조사되었다. 연구 2에서는 위에서 개발한 '부자유친성정 척도'와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공인타당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 등의 부모-자녀 관련 변인과 관계 비교를 통한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양호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부모-자녀 관계, 문화심리학, 척도 개발, 자기개념, 문제행동

2002년도 후반기에 들어서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급속히 퍼졌다. 이 말의 의미는 자녀들을 아내와 함께 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 그들의 유학비를 대는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는 의미는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 환경이 더 좋은 외국에서 교육을 시켜보자는 생각을 가진 부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수의 가정이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반증해준다. 물론 이

런 생각을 실천하는 데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남겨진 아버지의 외로움과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외국의 유학비용을 아버지가 전담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는 일념에 기꺼이 외로움과 힘겨움을 감수하고 '기러기 아빠'가 되기를 자청한다.

이러한 현상의 기원을 유학 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 이 논문은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 신진연구장려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장주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귀한 조언을 주신 세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이장주(120-728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경상관 4723호, jangju@wm.cau.ac.kr)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大學)』의 경문편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구절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 단위는 가정이며, 원만한 가정과 이를 구성하는 가족들간의 유대는 원만한 사회 및 대외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세대를 이어가는 관계 맺음 방식은 개인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대표 혹은 부분으로 파악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최봉영, 1994). 이러한 한국인의 인간관계 특성을 최상진(1999, 2000a)은 관계주의라 칭하였다. 즉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우리 집안 혹은 우리 학교 혹은 우리 고장을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내가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가문에도 누를 끼치는 것이라 여겼으며, 반대의 경우 나의 성공은 나의 범위를 넘어 나의 가족과 가문의 영광으로까지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유학 사상에서 완전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식의 성공과 실패는 곧 부모의 성공과 실패로 인식되거나, 자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노력은 바로 이러한 유학적 전통에서도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근원에는 유대-기독교 사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Laurent, 1993). 기독교의 견해에 의하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이며, 부모-자녀 관계는 부차적인 것으로 파악한다(김홍전, 1994). Shweder(1996)에 의하면, 서양에서 부부의 침실은 “신에게 바쳐진 한 쌍(the sacred couple, p. 30)”이라는 집단적 상징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자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조차 가능한 빨리 자신들의 침실에서 내보내 따로 재우도록 만들었다(김정운, 한성열, 1998). 또한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부모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룬 연구들(LeMasters, 1957; Dyer, 1963 : 이숙현, 1988 p. 165 개인용)은 자녀의 출산이라는 변화가 부부에게 심각한 정도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Glenn과 McLanahan(1982)은 고도의 이기적인 가치관과 감정적, 성적 친근감을 증시하는 결혼관이 팽배한 미국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연관되어, 서구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하느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온전한 성인으로 독립할 때까지 보살피주는 일을 담당해야’하는 소명(召命)의식이 깔려있다. 즉 내가 원하는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라는 의미가 자녀 양육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양육과정은 또 다른 독립적인 개체인 부모의 생활영역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Glenn & Weaver, 1978). 예를 들어 결혼 만족도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성인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다시 높아진다(Rhyme, 1981).

물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빨라진 정보와 인적 교류는 관계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문화적 개념의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아동학대(child abuse)’ 개념과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관계주의적 가족 개념이 개인주의적 그것보다 한국인의 마음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모자녀연구들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모델에 입각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점은 개인(individual)의 발달과정에서 독립성(independency), 자율성(autonomy)은 성숙으로 의존성(dependency), 관계성(relatedness)은 미성숙의 증거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최상진, 2002). 그러나 이들 개념은 서로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개념이 아닐뿐더러, 성숙과 미숙으로 나눌 수 없는 상호 의존적 개념이다(최상진, 2002; Raeff, 1997). 이것은 자아(self)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육체적(physical)으로 구분되는 자율적 존재라는 특성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기능하는 의존적 존재 특성이라는 두 특성의 교집합이라고 이해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 개인주의에 기반한 부모-자녀 관계 이론은 개인의 성숙(maturity)을 의존적인 아동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개별화되는 과정으로, 감성적인 특

1)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했던 야당후보가 낙선했던 요인 중 하나로 그의 아들들의 병역면제가 제기되었으며, 같은 해 실시되었던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총리의 자녀문제로 낙마한 예에서 그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성을 벗어나 이성적 존재가 되는 과정으로 보았다(최상진, 1999, 2002b). 그러나 이러한 성숙관은 일면적인 이론일 뿐이다. 개별화되는 다른 관점에서, 성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흔히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위인전에서 만나왔으며, 우리에게는 전자의 개별화 보다 후자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훨씬 더 성숙의 모델로 적합하다. 사실 이러한 모델에 대한 이론은 서구의 이론(예를 들면, Selman(1971)의 조망수용 능력이론, 게슈탈트(gestalt) 이론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²⁾, 우리 문화의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우리의 전통 사상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내재적 설명이 더 적합하다(김의철, 2000).

한국적 성숙의 개념인 '철들다'에 관한 연구(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의 결과를 보면, '타인배려'와 '자기절제'가 '독립심'이라는 범주보다 우선하는 '철들었음'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가정 내에서 중요한 타자인 부모에 대한 배려와 이러한 배려에 수반되는 자기 절제가 잘 훈련된 사람이 가정의 확대적 성격이 강한 사회와 국가에서도 성숙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란 자기 절제를 수반하는 배려가 부모-자녀간에 원만히 이루어지는 관계다. 또한 관계주의 문화에서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일반적 인간관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 일반적 범위의 일반적인 성숙(maturity)의 모델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부모-자녀 관계와 대비되는 관계주의적 부모-자녀 관계 모델의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이론은 최상진(1993; 2000a)에 의하여 '부자유친성정'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바 있다.

최상진(1993; 2000a)에 의하면,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항상 미안감, 측은감, 고마움 등과 같은 측은지정을 부지불식간에, 거의 무의식 또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으며, 부모들도 자식에게 똑같은 측은지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기쁨과 고통이 부모의 기쁨과 고통이 되고, 반대로 부모의 기쁨과 고통이 자녀의 그것으로 인식되는 '부모자식동일체 의식(앞의 책, p. 276)'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즉 부모-자녀 관계는 감정공동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중대시하려는 경향과 아픔을 느낄만한 일을 억제하게 되며, 반대로 마찬가지로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인고를 감내함으로써 자식을 감정동일체화시키는 자녀의 심정통제를 통한 영향력을 구사한다(최상진, 1993, 1994; 최상진, 김기범, 1999; 최상진, 김정운, 1998; 최상진, 유승엽, 1996; Choi, 1994 Choi, & Kim, 1999 등 참조). 즉 한국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정이라는 여린 마음을 통해 자식을 부모에 대해 심정적으로 여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한 응증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국 문화권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자애와 효를 바탕으로 한 감정·의식 동일체적 친애관계를 최상진(1994; 2000a)은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³⁾'이라 명명하였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원적인 인간관계이자 정서적 안정의 근본이 되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의 가장 기초적 연구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러나 서구의 개인주의적 부모-자녀관계 이론이 한국 문화의 실정에 적실(適實)하지 않다는 점이 최상진(1994, 1999, 2000a, 2000b)에 의해 주장되어 왔지만, 실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서구의 이론(예를 들면, 애착 이론, 부모 양육 행동 유형 등)이나 서구의 척도(예를 들

2) 보다 직접적인 서구의 부모-자녀 이론에 대한 도전은 일본인 심리학자 Azuma에 의해 제기되었다. Azuma, Kashiwagi and Hess, (1981)에 의하면, 서구의 부모는 자녀를 권위(authority)를 주요한 양육의 수단으로 삼지만, 일본의 부모는 자녀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추론(subjective and emotional reasoning)을 통해 교육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머니들은 '내(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깐 안돼!'라고 말하는 반면, 일본의 어머니들은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애가 울지도 모르니까 하지마!'라고 한다는 것이다.

3) 우선, '부자유친(父子有親)'이란 삼강오륜의 '부모자식간에는 친함이 있다'는 항목에서 차용하였는데,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간의 친함'이란 의미보다는 '부모와 자식간의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관용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으며, '성정(性情)'이란 심학(心學)에서 마음의 구성요소 중 타고난 기질(性)과 이러한 기질의 발현(情)을 의미한다(금장태, 1998). 즉 성정이란 마음 상태와 그 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부자유친성정이란 '부모자녀간에 존재하는 친밀한 마음과 그것의 발현'을 총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면, Barnes & Olson, 1982)를 문화적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번안하여 사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마저도 심리학계보다는 교육학이나 가족학 등 타학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심리학계에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론에 입각한 한국인 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실재는 그렇지 못해왔다. 근래에 들어 부모-자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예를 들면, 박영신, 김의철(1998))는 부모-자녀 관계가 중, 고등학생들의 성취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주제인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밀한 척도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몇몇 연구(예를 들면, 박영신, 김의철, 2000; 정영숙, 1994; 최상진, 2000a 등)들은 자체의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론적 측면(최상진, 2000a)에서 뿐 아니라 학교에서 성취나 참여성 등에 대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설명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의 도구는 부모 양쪽이 아닌 어머니 쪽만 검사(정영숙, 1994)를 하거나,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평가하도록 하거나(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3),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였고, 서구의 양육태도의 개념에 의해 제작된 질문지를 사용(박영신, 김의철, 2000)하는 등의 한계를 지녔다.

본 연구는 위에 적시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연구의 활성화와 기존 연구 도구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정교한 척도의 제작 및 타당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부모자녀 관계는 다양한 연령대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피험자를 선정하는데는 기술적인 이유, 실용적인 이유와 이론적인 이유 등 3가지가 있다. 우선 기술적인 이유로는, 다양한 자녀의 연령 대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너무 어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읽고 경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부자유친성정의 핵심인 심정의 이해에 덜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심정 읽기(혹은 경험하기)가 상대적으로 능숙한 청소년기 고등학생을 피험자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실용적 이유다. 실제로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기 때문이다(박영신, 김의철, 1998). 성인기로의 전이 단계로서 많은 시행착오와 역할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때 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청소년기의 적응에 필수적이며, 그래서 부모-자녀관계가 적응의 핵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예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예를 들면, 박영신, 김의철, 1998)에서 대부분 부모-자녀 관계에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 자기 효능감 등 청소년기의 중요 과제(issue)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들은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마지막 이유로는 이론적 이유인데,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청소년기(특히 사춘기 이후)는 질풍노도의 시기로써 부모와 대등한 관계로 정립을 위한 분쟁이 많은 시기로 규정한다(Hall, 1904; 김준운, 2001 재인용). 그러나 관계주의적 시각에서 청소년기는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입장을 배려하는, 일반적인 '철들기'의 시작이란 점에서 질풍노도라는 개념과 대비될 수 있다(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이러한 이론적 측면에서 문화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부모-자녀 관계의 문화적 특성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피험자로 선택하게 되었다.

예비연구

문항의 선별

예비연구의 목적은 부자유친성정 척도에 들어갈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문항목록을 선별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부자유친성정의 심리구성개념(psychological construct) 내용은 한국인의 정(情)의 개념이 된다(최상진, 2002). 그 범위로 정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구체적인 연구 목표가 된다.

기존의 문화적 변인을 고려한 부모-자녀 관계 연구(예를 들면, 정영숙, 1994; 최상진 등, 1994)는 일반적인 부모(최상진 등, 1994)를 상정하거나, 어머니(정영숙, 1994)만을 대상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그려내는데 한계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반응을 독립적으로 측

정한 연구(예를 들면, 박영신, 김의철, 2000)들은 자녀의 성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일반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일반화하는 한계를 보였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성역할에 따른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Russell & Saebel, 1997)이 설득력을 얻는 현실에서, 위에서 제기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부자유친성정의 구성내용이 되는 한국인의 정(情) 하위 구조, 즉 우리성-일체감, 아껴줌, 허물없음(최상진, 이장주, 1999)이 성역할(부/모×아들/딸)에 따라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떠내서 정리하는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적 접근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최상진, 2000a, 2000b). 연구의 결과는 이 후 척도를 구성하는 형식과 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대상 및 절차

조사 대상자는 수도권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405명(남: 183명, 여: 222명)을 대상으로 2002년도 6월에 실시되었다.

연구 도구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먼저 성별과 학년 등의 기초적 신상을 적도록 하였으며, 효과적인 반응의 유발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도록 하였다. 그 후 정 의 하위 요소인 '우리성-일체감', '허물없음', '아껴줌'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성-일체감은 '어머니/아버지가 나의 편이라고 느껴졌던 경험이나 상황'으로, '허물없음'은 '어머니/아버지가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던 경험이나 상황'으로, '아껴줌'은 '어머니/아버지가 고맙게 느껴졌던 경험이나 상황' 등의 질문을 하였다. 아울러 부자유친성정의 핵심적 요소가 '아껴줌'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나를 더 아껴준다고 느꼈던 경험이나 상황'이라는 다른 질문에 답을 적도록 하여 아껴줌에 대한 상세한 반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 반응을 '어머니/아버지를 떠올리면, () 생각이 들어서, () 싶다'라는 문장의 빈칸 채우기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현재 고등학생들이 부모에게 느

끼는 감정을 알아보았다. 위의 질문들은 다양한 경험을 얻는다는 목표에 맞게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 하였으며, 범주화된 내용의 빈도분석을 통해 정 하위요인의 주요한 응답을 추출하였다.

결과4)

우선 성역할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양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정에 관한 구체적 하위 요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반응의 조사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전통적인 부모에 대한 측은지정(惻隱之情)이 서구 개인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현재의 고등학생들에게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결과는 '고생', '미안함(죄송)', '고마움' 등 부자유친성정의 핵심적 요소인 측은지정(惻隱之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들이 부모에 대한 일반적 반응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행동목록들은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1에서 사용된 척도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었다.

연구 1 : 척도의 내적 일치도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996명(남: 462명, 여: 534명)의 수도권 일원의 인문계 고등학생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그리고 신뢰도 산출에 376명(남: 172, 여: 204; 1학년: 64, 2학년: 166, 3학년: 146)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이 다른 표본도 일반화 될 수 있는 모형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교차타당화를 실시하기 위해 앞의 피험자에 포함되지 않은 665명(남: 307, 여: 359)의 피험자를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에 사용하였다.

절차를 살펴보면, 예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자유친성정을 잘 측정한다고 판단되는 상위 빈도의 응답들을, 연구의 목적을 숙지하고 있는 박사과정 이상의 대

4) 보다 상세한 결과는 이장주의 동명 학위논문을 참조바람.

학원생 3인이 독립적으로 선별하였다. 그 후 각각의 선별 목록을 취합하였으며, 선별 목록 중 상호 중복되는 응답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선행 연구(정영숙, 1994; 최상진, 1994, 2000a)의 도구를 참고하여 50 문항의 예비문항을 완성하였다. 선별된 도구는 연구의 목적을 숙지한 담당 교과 선생님들에 의해 학생들에게 배포, 수거되었다.

결과

문항분석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검사하기 위해 실시된 문항분석은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그리고 문항 변별도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각각 산출하였다.

문항 분석은 부자유친성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핵심(최상진, 2002)이란 점을 고려하여, 어머니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문항을 선별한 후, 아버지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어머니에 대한 문항 분석은 평균 분석은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3.20이하)인 11 문항을 제거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온 문항(4.45)인 v36 '어머니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든다'는 문항의 속성과 변별도를 고려해 제거하지 않고 문항에 포함시켰다. 표준편차의 분석에서 표준편차가 너무 크거나 작은 문항을 제거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5점 척도란 점을 고려해 볼 때 표준편차가 1.5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1.5와 가까운 수치를 보인 2문항을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표준편차의 범위는 .88에서 1.23까지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렇게 선별된 25문항의 전체 문항과 상관은 .38에서 .67까지의 범위로 유의수준 $p < .001$ 이하로 양호하게 조사되었으며,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의 범위는 .92에서 .93까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합산점수를 토대로 상, 하위 30%의 두 집단 사이에 각 문항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t-검증을 통해 알아본 변별도 검사에서 25개 문항 모두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두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을 측정된 점수들의 문항 양호도를 살펴보면, 우선 평균의 분석에서 v17이 2.99를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점수가 어머니의 그것보다 낮게 보고 되었다는 점과 평균 3에 근접하다는 점에서 그대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준편차는 1.1에서 1.4의 범위로 비교적 안정된 분포를 보였으며, 문항-전체 상은 .40에서 .77까지의 범위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는 .95에서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변별도에서도 유의수준 $p < .001$ 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부록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자유친성정의 구성개념을 알아보고자, 문항분석을 통해 얻어진 25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이전에 남녀학생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남녀집단 각각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요인의 수와 측정변수의 부하량이 대체로 유사하여 남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문항분석에 사용된 376명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자유친성정의 구성요인으로서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eigen value), 누적 설명변량 비율, 스크리 검사(scree test), 그리고 해석가능성 등의 기준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 방법은 부자유친성정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정(情)의 하위 요소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인간의 연관성을 가정하는 사교회전(oblimin)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요인 수는 각각 2개로 결정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3을 넘지 못하는 3 문항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요인이 다르게 묶이는 2 문항을 제외한 20문항이 적용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이 .3 이상을 보인 결과만을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요인부하량을 보여주는 표 2에서, 제 1요인의 문항들은 '자랑스러워 함', '존중함', '믿어줌' 등의 내용이 주로 묶였으며, 전체적으로

표 1.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척도 문항 요인부하량

문항(어머니)		요인1	요인2	문항(아버지)		요인1	요인2
v 7.	어머니는 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829		v 7.	아버지는 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896	
v 6.	어머니는 나를 존중해 준다.	.791		v 6.	아버지는 나를 존중해 준다.	.790	
v 2.	힘들 때에 어머니는 나로 인해 힘을 얻으신다.	.723		v10.	내가 마음이 좋지 않으면, 아버지도 마음 아파하신다.	.753	
v23.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신다.	.710		v37.	아버지는 나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741	
v37.	어머니는 나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696		v 2.	힘들 때에 아버지는 나로 인해 힘을 얻으신다.	.737	
v17.	어머니가 가깝다고 느껴진다.	.691		v24.	아버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 시려고 한다.	.735	
v24.	어머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 려고 한다.	.668		v 8.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대신 상대에 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	.715	
v19.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643		v23.	아버지는 나를 믿어주신다.	.700	
v 3.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486		v17.	아버지가 가깝다고 느껴진다.	.692	
v10.	내가 마음이 좋지 않으면, 어머니도 마음 아파하신다.	.442		v19.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599	
v 8.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내 대신 상대에 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	.344		v 3.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573	
v21.	어머니는 좋은 것이 생기시면 나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신다.		.902	v36.	아버지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든다.		-.869
v11.	내가 만약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할 것이다.		.876	v21.	아버지는 좋은 것이 생기시면 나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신다.		-.867
v12.	어머니는 내가 잘되는 것이라면 어떤 고생도 참아내실 것이다.		.719	v 1.	아버지에게는 나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829
v22.	어머니는 내가 아프면, 밤새라도 간호를 하실 것이다.		.639	v11.	내가 만약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면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할 것이다.		-.777
v 9.	어머니는 당신에게 필요한 일보다 나에게 필요한 일을 더 먼저 생각하신다.		.617	v12.	아버지는 내가 잘되는 것이라면 어떤 고생도 참아내 실 것이다.		-.771
v 5.	어머니는 내가 속을 썩여드리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575	v22.	아버지는 내가 아프면, 밤새라도 간호를 하실 것이다.		-.623
v 4.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		.573	v 5.	아버지는 내가 속을 썩여드리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540
v36.	어머니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든다.		.565	v 9.	아버지는 당신에게 필요한 일보다 나에게 필요한 일을 더 먼저 생각하신다.		-.523
v 1.	어머니에게는 나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551	v 4.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		-.452
	고유값	8.55	1.48		고유값	10.68	1.29
	설명량(%)	42.70	7.43		설명량(%)	53.4	6.4
	내적합치도(α)	.89	.88		내적합치도(α)	.93	.92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지각하는 자녀들에 대한 믿음과 지지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신뢰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이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을 설명하는 설명량은 42.70%였다. 이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양호하였다.

제 2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대체로 자녀가 어머

니에 대해 지각하는 '아껴줌', '보살펴 줌', '희생', '양보' 등의 내용이 주로 묶였으며, 전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성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헌신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이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을 설명하는 설명량은 7.43%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이상의 2 요인은 자녀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전체 변량의 50.1%를 설명하였으며,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3 였다.

자녀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제 1 요인은 자녀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믿음과 지지의 정도를 나타낸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 성정과 마찬가지로 '신뢰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량은 53.4%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계수는 .93 이었다. 제 2 요인은 자녀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회생과 양보의 정도를 보여주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헌신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설명량은 6.4%로 나타났다. 이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이상의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의 2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8%를 설명해주었으며,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는 .95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요인구조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바, 예비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정(情) 경험의 차이가 작게 나타난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었다.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반분 신뢰도 (split-half reliability)가 채택되었으며, 반분 신뢰도의 추정을 위해 각각의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추정된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우선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하위 요인의 상관은 신뢰성 요인, 헌신성 요인 각각이 .887과 .758로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하위 요인인 신뢰성 요인, 헌신성 요인 역시 .907, .84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요인들이 일관성 있

표 2. 반분신뢰도

	1	2	3	4
1. 어머니 : 신뢰성	.877**			
2. 어머니 : 헌신성		.758**		
3. 아버지 : 신뢰성			.907**	
4. 아버지 : 헌신성				.844**

게 구성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제시된 적합도 중 GFI(goodness of fit index)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9 이상일 때 모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GFI보다 낮은 수치가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략 .85 이상일 경우 모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이순목, 1990). NFI(normed fit index)도 역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대략 .9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는 좋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MR(root mean square residual)도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아래의 표 3을 확인해 보면, 자녀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2요인 모델은 GFI값이 .906을 비롯하여, 모든 부합도 측정치들이 기준 이상의 양호한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2요인 모델 역시 RMR을 제외한 모든 부합도 측정치들이 양호하게 조사되었으며, RMR 역시 임계치에 가깝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수용할 만한 모델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앞서 분석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구조는 다른 표집에도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사료된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	부합도 지수					
	χ^2	df	GFI	AGFI	NFI	RMR
부자유친성정 : 어머니	698.405	168	.906	.882	.911	.043
부자유친성정 : 아버지	731.862	167	.900	.874	.919	.054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지각하는 부자유친성정을 측정하도록 해주는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분석하고, 척도의 요인과 신뢰도를 산출하며, 이러한 요인이 다른 집단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교차 타당화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검사 개발절차 순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의 개발과정은 연구 1의 내용분석 결과와 선

행연구(최상진 등, 1994)를 바탕으로 예비문항 50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사회-문화심리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39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문항을 이용하여 문항 양호도를 조사하였다.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문항분석은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전체 신뢰도, 변별도 등이 고려되었다. 그 결과 평균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12문항과 표준편차가 너무 큰 점수를 보인 2문항을 제거한 25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문항-전체 상관과 문항 제거 시 전체 신뢰도, 변별도 등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25개의 문항분석 결과 선별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다른 요인과의 요인 부하량이 .3이하인 문항 3문항과 아들, 딸의 요인에서 서로 다른 요인으로 묶인 2 문항 등 5 문항을 제외한 총 20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녀들이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의 요인분석 결과 '신뢰성 요인', '헌신성 요인' 등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2요인은 전체 변량의 50.1%를 설명해 주었다. 자녀들이 지각한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의 요인분석 결과는 '신뢰성 요인', '헌신성 요인' 등의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2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59.8%이었다. 이들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88에서 .93의 범위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요인 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앞의 연구 1에서 내용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다시 입증해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요인들이 다른 표집에 일반화 될 수 있는 모델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 타당화의 결과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2요인은 GFI, NFI, AGFI와 RMR 등의 부합도 지수에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에 대한 2요인 역시 양호한 부합도 지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자유친성정 척도가 다른 피험자들에게도 일반화 시켜 적용시킬 수 있음이 시사된다.

넷째,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반분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척도의 하위 요인들은 .75에서 .90까지 높은 상관을 보여 주었으며, 유의도 수준 $p < .001$ 수준을 타나났다. 이

러한 결과는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요인들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녀들이 지각하는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을 측정하는 척도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 2 : 부자유친성정 척도와 다른 척도간의 관련성

연구 2는 연구1에서 제작된 부자유친성정 척도와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측정 척도 및 부모-자녀 관련 변인간의 관련성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공인타당도 및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수도권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665명(남 : 307, 여 : 359)으로, 연구 2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적용되었던 피험자와 동일하다. 이들의 평균연령 16.8세였고, 부모의 평균연령은 아버지 47세, 어머니 44세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의 평균 형제 수는 2.08명이었으며, 출생순서는 1.54번째였다.

연구 도구 및 절차

부자유친성정척도

연구 2에서 구성한 20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측정은 같은 문항에 대해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에 대해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점수는 합산하여 예측변인의 값으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자유친성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아버지 척도 .95와 어머니 척도 .95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국내에서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서구의 척도로써 Barnes과 Olson(1982)이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을

표 4. 척도들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평균	SD
1. 부자유친 : 부-신뢰성	1.000									3.47	.84
2. 부자유친 : 부-현신성	.840**	1.000								3.91	.92
3. 부자유친 : 모-신뢰성	.740**	.662**	1.000							3.75	.72
4. 부자유친 : 모-현신성	.592**	.756**	.832**	1.000						4.13	.79
5. 의사소통 : 아버지	.759**	.593**	.516**	.365	1.000					2.94	.64
6. 의사소통 : 어머니	.488**	.403**	.673**	.520**	.691**	1.000				3.20	.60
7. 자아개념	.496**	.408**	.527**	.427**	.434**	.429**	1.000			3.40	.52
8. 자아존중감	.378**	.298**	.402**	.303**	.357**	.319**	.808**	1.000		3.31	.66
9. 문제행동	-.079	-.096*	-.077	-.108*	-.043	-.056	.052	.047	1.000	-	-

측정하는 각 10문항씩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 척도역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각각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의사소통 척도의 점수는 '폐쇄적 의사소통'을 역척도로 재부호화하여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와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아버지 .88이었고, 어머니 .87로 양호하였다.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 개념이란 자기의 속성에 대한 일련의 믿음으로 파악하여 이훈진(1997)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 자아, 가족 자아, 사회적 자아, 능력 자아 등 6개의 하위 영역의 자아개념을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반적인 자아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Rogenberg(1956)가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4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문제행동

문제행동이란 도덕적, 이론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응철(1992)이 사용하였던 비행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90로 양호하였다.

결과

척도들간의 상관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공인타당도⁵⁾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에 부모-자녀 관계의 측정에 많이 사용되었던 Barnes과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외의 부모-자녀 관계 관련 변인들에 대한 상관 역시 조사되었으며 결과는 각 측정치들의 기술 통계치들과 함께 아래 표 4에 제시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척도 측정치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측정치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p<.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부자유친 척도의 아버지 하위 요인 점수는 의사소통 척도의 아버지 점수간에 .759, .593 등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부자유친 척도의 어머니 점수 역시 의사소통 척도의 어머니 점수간에 .673, .520 등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부자유친의 아버지 점수와 의사소통의 어머니 점수, 부자유친의 어머니 점수와 의사소통의 아버지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부자유친성정 척도는 기존의 '부모-

5) 상호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 질적(質的) 측면에서 다른 두 척도의 비교를 공인타당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굳이 이를 표현하자면, 유사(類似)공인타당도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자유친성정과 유사한 개념 측정항목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척도로 대신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자녀 의사소통 척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자유친성정 척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밀착성'을 잘 측정해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 변인에 대한 회귀 분석

표준(enter) 방식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표 3-2를 보면, 우선 자아개념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척도(F(2, 600)=121.6, p<.001)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F(2, 614)=90.39, p<.001)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예측변인이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량은 전체 변량의 29%와 23%를 차지한 바, 부자유친성정 측정치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측정치보다 6% 가량을 더 잘 예측해 주었다. 또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보여주는 β은 어머니에 대한 측정치가 아버지의 그것보다 크다는 점에서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자아개념을 더 잘 예측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해주는 회귀식에서도 역시 부자유친성정 척도(F(2, 605)= 58.295, p<.001)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F(2, 620)=51.794, p<.001)는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예측변인들은 자아존중감 변량의 17%와 14%를 예측해주는 바,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보다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측정치가 자아존중감 변량의 약 3%가량을 더 잘 예측해 주었다. 또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보여주는 β은 어머니에 대한 측정치가 아버지의 그것보다 크다는 점에서 어머니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더 잘 예측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 행동을 예측해주는 예측 모델을 살펴보면, 앞의 두 회귀식과는 다르게, 부자유친성정 척도(F(2, 596)= 3.326, p<.05)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조사된 반면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F(2, 612)=1.04,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자유친성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문제행동의 예측에 기여하는 양은 유의미하지 않게 조사되었으며, 회귀식에서 상수(constant)값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아 개념이란 자기의 속성에 대한 일련의 믿음으로서,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 자아, 가족 자아, 사회적 자아, 능력 자아 등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이훈진, 1997). 이들 하위 영역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하위요인을 통한 예측 모델을 통해 부자유친성정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유의미한 회귀식이 구성되지 않은 신체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를 제외한 나머지의 자아개념 하위 요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성격 자아'를 예측하는 부자유친성정의 하위 요인으로는 아버지에 게서 느끼는 신뢰성 요인이었으며, 설명량은 9.4% 가량 되었다. 두 번째, 가족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가족 자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신뢰성 요인 등 2 변인이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으며, 설명량은 절반이 넘는 52.4%였다. 세 번째, 사회적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긍정적 지각인 '사회적 자아'에 대한

표 5. 부모-자녀 관련 변인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표준방식

예측변인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R ²	B	β	R ²	B	β	R ²	B	β
부자유친성정	.288***			.175***			.011*		
아버지		.198	.044***		.069	.192***		-.059	-.058n.s
어머니		.338	.052***		.099	.237***		-.065	-.054n.s
의사소통척도	.227***			.143***			.003n.s.		
아버지		.324	.061***		.142	.275***		-.028	-.019n.s
어머니		.320	.064***		.071	.131*		-.068	-.043n.s

표 6. 자아개념 하위 요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 표준방식

예 측 변 인	성격 자 아			가족 자아			사회적 자아			능력 자아			자아존중감		
	R ²	B	β	R ²	B	β	R ²	B	β	R ²	B	β	R ²	B	β
부자유친성정	.094***			.524***			.092***			.140***			.175***		
아버지:신뢰	.09	.258*		1.30	.294***		.063	.174n.s		.058	.145n.s		.158	.238*	
아버지:현신	-.05	-.13n.s		0.07	.145n.s		-.03	-.09n.s		-.02	-.04n.s		-.03	-.049n.s	
어머니:신뢰	.04	.129n.s		1.72	.362***		.050	.130n.s		.147	.340***		.189	.266***	
어머니:현신	.03	.062n.s		-0.0	-.012n.s		.059	.114n.s		-.03	-.66n.s		-.01	-.011n.s	
상수(constant)	11.44***			2.713***			11.693***			8.991***			19.124***		

주) n.s : 유의미하지 않음, *p<.05, **p<.01, ***p<.001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지만, 부자유친성정 하위 요인들은 모두 유의미하게 사회적 자아를 예측해주지 못했다. 네 번째, 자신의 일반적인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인 ‘능력 자아’는 어머니의 신뢰성 요인이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설명량은 14.0% 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뢰성 요인이 유의미한 예측인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예측해주는 부자유친성정의 하위 요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지각하는 ‘신뢰성 요인’이었으며, ‘현신성 요인’은 긍정적 자아 개념을 예측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역으로 긍정적 자아에 대한 지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문제행동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인을 이끌어 가는 특성과 대비되어, 문제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개인을 빠져들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 경험에 관한 질문지를 통하여 31개의 비행 행동을 측정했으며, 비행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부호화를 하였다. 심각성이 가장 높은 ‘심각성 : 상’의 예로는 ‘강도’, ‘강간’, ‘폭력서클 가입’, ‘환각제나 본드 사용’, ‘흥기 소지’ 등 5개의 행동 목록이 포함되었다. ‘심각성 : 중’의 예로는 ‘절도’, ‘도박’, ‘싸움’ 등 9 개의 행동 목록

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17개는 심각성 : 하로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의 초점이 가정이란 점에서 가장 관련 비행인 ‘가출’과 ‘부모에 반항’을 따로 분리, 합산하여 가정관련 문제행동으로 채점하였다.

이러한 문제 행동에 대한 회귀 분석의 결과 유의미한 회귀식을 구성하지 못하는 ‘심각성 : 상’을 제외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심각성이 중간정도인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부자유친성정의 하위 요인으로는 어머니에게서 지각된 현신성 요인이었으며, 설명량은 2.4% 가량 되었다. 문제 행동이 심각성이 낮은 ‘심각성 : 하’의 문제 행동 역시 지각된 어머니의 현신성 요인과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1.8%였다. 마지막으로 가정관련 문제행동은 주로 아버지와 신뢰와 가장 높은 역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 행동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하위 요인의 예측력을 분석한 표 7을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주 요인은 ‘어머니의 현신’이었다. 이에 비해 아버지에게서 지각하는 ‘신뢰’도 문제행동을 막는다고 조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앞의 자아개념 및 자존감 분석과 통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버지/어머니에게서 지각하는 ‘신뢰성 요인’은 자녀들을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반면, ‘현

6) 이러한 설명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는 하였지만, 매우 낮은 설명수준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요인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줄일 수 있다면 설명량은 지금 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문제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 표준방식

예 측 변 인	문제행동-심각성 : 중			문제행동-심각성 : 하			가정관련 문제행동		
	R ²	B	β	R ²	B	β	R ²	B	β
부자유친성정	.024**			.018*			.051***		
아버지 : 신뢰		-.029	-.079 n.s		-.167	-.158 n.s		-.006	-.386***
아버지 : 헌신		.007	.019 n.s		.080	.070 n.s		.003	.208*
어머니 : 신뢰		.065	.163 n.s		.186	.165 n.s		.000	.026 n.s
어머니 : 헌신		-.129	-.241*		-.305	-.204*		-.000	-.088n.s
상수(constant)		34.524***			13.937***			4.611***	

주) n.s : 유의미하지 않음, *p<.05, **p<.01, ***p<.001

신성 요인' 역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신에 헌신성 요인은 문제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믿어주시려고 한다는 지각은 개인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드는 반면,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다는 생각은, '문제 행동'과 같이,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요약 및 논의

연구 2의 목적은 연구 1에서 제작한 '부자유친성정'의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알아보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재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Barnes과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자유친성정 척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문제 행동 등의 부모-자녀 관계 유관 변인들과 회귀분석을 실시해 봄으로써 유관 변인들에 대한 두 척도의 예측력 정도를 가늠해 보았으며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하위 요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간의 상관은 아버지 측정치들 간에 .759, .593 등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부자유친 척도의 어머니 점수 역시 의사소통 척도의 어머니 점수간에 .673, .520로 나타나는 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표 5참조). 반면 부자유친성정의 아버지 측정치와 의사소통 척도의 어머니 측정치들

과 부자유친성정의 어머니 측정치와 의사소통 척도의 아버지 측정치들 간에,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두 척도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연구 1에서 개발한 부자유친성정 척도는 개발 목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밀착성을 잘 측정해주는 타당성 있는 도구라고 판단된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 유관 변인들과 상관분석의 결과를 보면, 부자유친성정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측정치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문제 행동의 경우 의사소통 측정치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고한데 비해, 부자유친성정 측정치만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라는 현상은 비록 문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파악하는데는 구체적 문화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에 현상이 좀 더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관계 유관 변인에 대한 예측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표 5)에서, 부자유친성정 척도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들보다 모두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부자유친성정의 하위 요인을 통한 회귀분석 결과(표 6, 표 7)는 구체적으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는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신뢰성 요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문제행동의 경우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헌신성 요인이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부자유친성정의 하위 요인인 '신뢰성 요인'과 '헌신성 요인'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데, 신뢰성의 요인은 자녀의

긍정적인 성장(예를 들면, 자아개념)을 촉진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헌신성 요인은 자녀의 퇴행(예를 들면, 문제행동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비유를 들자면, 부모의 헌신성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숙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 주며, 신뢰는 이러한 발판을 딛고 힘차게 도약하도록 해주는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자유친성정 척도는 공인타당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및 문제 행동 등의 관계 변인을 비교적 잘 예측해주는 척도라고 사료된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부모-자녀관계 이론은 관계주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문화의 실정에 적실하지 않다는 비판(최상진, 1994, 1999, 2000a)의 대안으로 구성된 최상진(2000a)의 '부자유친성정'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의 밀착성 정도를 고등학교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에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주된 감정은 '안쓰러움', '안타까움', '미안함', '죄송함', '고마움' 등의 부자유친성정에서 나타나는 '측은지정'이 주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청소년들이 서구의 가치관 수용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해간다는 주장(이종한, 2000)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보은이라는 전통적 효 사상이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부모-자녀간의 정(情)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우리성-일체감', '허물없음', '아껴줌' 등 3가지 정 하위 요인의 내용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결과는 아들과 딸이 그 부모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 목록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간의 역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자녀의 수가 2명으로 소수라는 점과 사회의 변화와 어머니의 사회 진출로 인한 전통적 성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셋째, 예비연구의 내용분석과 기존 연구(정영숙, 1994; 최상진 등, 1994)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고로 제작된 부자유친성정척도 예비문항의 내용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한 20문항의 척도가 구성되었다. 부자유친성정척도의 하위 요인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식을 믿고 지지해주는 '신뢰성 요인'과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성 요인' 등의 2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요인의 신뢰도는 .88에서 .93 사이에 분포하는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요인구조가 일반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교차타당화에서 2 요인의 하위 요인은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척도가 한국적 부모-자녀간의 밀착성을 잘 측정해주는 타당한 도구임을 보여준다.

넷째,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목적으로 실시된 Barnes과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와 상관분석을 통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상관 구조 역시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자유친성정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였던 부모-자녀간의 밀착성을 잘 측정하는 타당성 있는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와 의사소통 척도 중 어느 것이 부모-자녀 관계 관련 변인을 더 잘 예측해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한 부자유친성정 척도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보다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등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자유친성정 척도가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척도와 비교해서 더 우수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구의 이론적 배경 하에 구성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예를 들면, Barnes과 Olson, 1982)보다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이론인 '부자유친성정'을 통해 측정된 측정치가 구보다 현실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심리학 연구에서 문화적 고려의 중요성을 당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증적인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으로는 첫째, 서구의 이론적 배경 하에 구성된 부모-자녀 의사소

통 척도(예를 들면, Barnes과 Olson, 1982)를 문화적 고려 없이 사용해 오던 풍토에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이론인 '부자유친성정'을 통해 측정된 측정치가 구보다 현실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심리학 연구에서 문화적 고려의 중요성을 당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증적인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표현, 유지시켜주는 개념인 정(情)은 가족을 원형으로 생성된 되었다는 점(최상진, 이장주, 1999; 최상진, 최수향, 1990)에서 '부자유친성정'이란 개념은 단순히 가족 내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 관계로 확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김명언과 이영석(2000)의 연구는 직장 내에서 신뢰받는 상사의 모습과 본 연구에서 부모에게 느끼는 유친성정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이런 점은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이 바로 가족을 원형으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었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이 발달의 방향이라고 보았던 서구의 성숙관에 대한 대안적 성숙관으로써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그러한 심정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관계주의의 성숙모델(예를 들면, 철들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관계주의의 핵심 단위가 가족이라고 할 때, 부자유친성정은 이러한 성숙 모델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한계는 부모-자녀 관계는 양방향적 관계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중 한 방향,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부자유친성정만을 다루었다는 점이 첫 번째 한계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적실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역시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피험자 분포가 수도권 일원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다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피험자의 편포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생이나 실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척도는 좀더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의 선행 연구의 선례를 따라 본

척도에서도 역척도(reverse scale)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점은 피험자의 경험 이외에 문항 자체에 대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역척도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의의를 살려주는 많은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 3, 특집호, 99-120.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 3, 특집호, 1-24.
- 김정운 (2001). 아동의 생산과 소비.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6, 2, 59-79.
- 김정운,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7, 1, 97-114.
- 김홍진 (1994). *혼인가정과 교회*. 서울 : 성악출판사.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발달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30-40.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4, 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이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 2, 109-146.
- 심용철 (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숙현 (1988). 한국 근로자 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161-181.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 3, 특집호, 201-219.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영숙 (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 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 도서출판 느티나무.
- 최상진 (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심포지움, 5-21.
- 최상진 (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3-237.
- 최상진 (1999). 한국인의 마음. 최상진, 윤호균, 한덕용, 조공호, 이수원(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pp. 377-479), 서울 :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a). 한국인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00b).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 지난 20여 년간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은 문화심리학적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 3, 특집호, 25-40.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8, 1, 1-16.
- 최상진, 김정운 (1998). "Shim-Cheong" psychology as a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lective meaning construction.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 2, 79-96.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학술발표논문초록, 65-82.
- 최상진, 유승엽 (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학술발표논문초록, 377-388.
- 최상진, 이장주 (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권 1호, 219-234.
- Azuma, H., Hess, R. D. & Kashiwagi, K. (1981) Mother's attitudes and actions and the intellectual (mental) development of children Tokyo : Tokyo University Press.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Family Inventories*,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A. and Wilson, M. (Eds.). St. 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pp. 29-44.
- Choi, S. C. (1994). *Shim Jung Psychology : The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Asian Psychologies : Indigenous,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sian Workshop in Korea.
- Choi, S. C., & Kim, K. (1999). Shim-cheong : Th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Glenn, N. D., & Weaver, C. N. (1978). The marital happiness of remarried divorced pers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269-282.
- Laurent. (2001). 개인주의의 역사(*Histoire de l'individualisme*). (김용민 역) 서울 : 한길사. (원전은 1993년에 출판).
- Raeff, C. (1997).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 Cultural values,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an American individualistic self. *Developmental Review*, 17, 205-238.
- Rhine, D. (1981). Basi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941-955.
- Rogengerg, M. (1956).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lman, (1971). Taking another's perspective : Role-taking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2, 1721-1734.
- Shweder, (1996). True ethnography : the lore, the law, and the lure. In R. Jessor, A. Colby & R. A. Shweder (Eds.), *Ethnography and human developmen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록. 문항분석표

문항 번호	어머니					아버지				
	a	b	c	d	e	a	b	c	d	e
v1	4.19	.96	.5480***	.9279	-10.570***	3.82	1.20	.7115***	.9594	-15.373***
v2	3.60	1.09	.5505***	.9274	-11.431***	3.56	1.25	.6869***	.9595	-16.129***
v3	3.84	1.02	.5979***	.9271	-11.988***	3.76	1.18	.7708***	.9591	-18.907***
v4	4.12	.97	.4932***	.9280	-9.492***	3.68	1.21	.7022***	.9595	-14.656***
v5	4.23	.96	.5656***	.9275	-10.496***	3.82	1.20	.6866***	.9596	-14.951***
v6	3.86	1.03	.5867***	.9272	-11.839***	3.62	1.21	.7399***	.9593	-17.639***
v7	3.61	1.14	.6242***	.9267	-12.970***	3.69	1.19	.7254***	.9594	-18.076***
v8	3.58	1.23	.5164***	.9277	-10.570***	3.35	1.27	.6278***	.9598	-14.091***
v9	4.06	1.02	.6384***	.9268	-13.261***	3.56	1.23	.7330***	.9593	-16.916***
v10	3.88	1.10	.6346***	.9266	-12.315***	3.35	1.15	.7223***	.9594	-17.482***
v11	4.30	.88	.5918***	.9274	-10.248***	4.16	1.07	.6793***	.9597	-13.301***
v12	4.15	.97	.5649***	.9275	-11.590***	3.87	1.13	.7034***	.9595	-14.180***
v13	3.05	1.20	.5289***	.9276	-11.803***	2.98	1.28	.6421***	.9598	-13.606***
v14	3.26	1.22	.3890***	.9290	-7.972***	3.16	1.32	.5352***	.9604	-11.196***
v15	3.09	1.31	.5007***	.9279	-11.242***	2.36	1.26	.6253***	.9599	-15.769***
v16	3.16	1.11	.4419***	.9284	-9.331***	2.12	1.13	.4803***	.9606	-9.817***
v17	3.94	1.11	.6503***	.9265	-14.225***	2.99	1.36	.7401***	.9592	-20.531***
v18	3.99	1.05	.5429***	.9275	-11.335***	3.72	1.28	.6506***	.9597	-13.559***
v19	4.01	1.12	.6718***	.9263	-13.803***	3.08	1.34	.7778***	.9590	-21.443***
v20	3.93	1.23	.3591***	.9292	-7.378***	3.14	1.43	.5163***	.9605	-11.098***
v21	4.13	1.00	.5157***	.9278	-9.546***	3.71	1.23	.6723***	.9596	-14.128***
v22	4.05	1.10	.5819***	.9271	-11.811***	3.29	1.31	.6918***	.9595	-16.996***
v23	4.02	1.00	.6413***	.9268	-13.191***	3.81	1.16	.7702***	.9592	-17.955***
v24	3.97	1.02	.6007***	.9271	-13.085***	3.86	1.16	.7128***	.9694	-15.715***
v25	3.59	1.14	.5131***	.9277	-9.999***	3.63	1.23	.6242***	.9699	-12.792***
v26	3.04	1.44	.4168***	.9289	-9.161***	2.36	1.41	.5417***	.9604	-12.169***
v27	2.46	1.63	.3296***	.9304	-6.939***	2.14	1.54	.3971***	.9614	-8.073***
v28	2.00	1.36	.3539***	.9295	-7.060***	2.13	1.43	.4871***	.9607	-11.769***
v29	2.30	1.44	.3682***	.9295	-7.706***	2.37	1.51	.5259***	.9605	-12.487***
v30	2.03	1.31	.3194***	.9298	-6.975***	1.90	1.32	.3919***	.9611	-8.324***
v31	3.23	1.47	.4405***	.9287	-10.061***	2.28	1.45	.4434***	.9610	-9.202***
v32	3.21	1.49	.4637***	.9284	-11.004***	2.22	1.40	.4882***	.9607	-11.127***
v33	1.93	1.15	.3813***	.9290	-6.997***	1.89	1.23	.4775***	.9606	-9.208***
v34	3.10	1.33	.3698***	.9293	-8.206***	2.34	1.34	.4686***	.9607	-9.212***
v35	2.10	1.43	.2317***	.9310	-5.045***	1.95	1.31	.4074***	.9610	-8.056***
v36	4.45	.91	.4927***	.9281	-8.227***	4.20	1.13	.6261***	.9599	-11.444***
v37	3.78	1.09	.6701***	.9263	-14.665***	3.31	1.25	.7588***	.9591	-20.157***
v38	3.06	1.49	.4423***	.9287	-10.534***	2.25	1.45	.4886***	.9607	-11.182***
v39	4.03	1.10	.5139***	.9277	-9.921***	3.89	1.23	.6650***	.9596	-13.869***

주 1) a : 평균, b : 표준편차, c : 문항-전체 상관, d : 문항제거 시 내적합치도, e : 변별도(t)

주 2) ***<.001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cale

Jangju Lee and Sang Chin Choi

Research Center for Leisure and Culture,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cale(PAABS) which measures the extent that an adolescent have the perceived affective closeness with their parents and examine reliability, validity of this scale. Constructing this scale was theoretically based on the Korean cultural psychological theory 'Korea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Bu-Ja-Uy-Chin-Sung -Cheong)' proposed by S. C. Choi(1994, 1999, 2000a).

The present study consisted three parts including preliminary study. preliminary study was to examine the general affective response to their parents and gain the concrete behavior scripts which easily observed and used for expressing *cheong* mind in everyday life of Korean family with open-ended questionnaire. In the 1st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study, preliminary 50 items were prepared and executed to a sample of 376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result of item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cale(PAABS) was constructed. PAABS was consisted of 2 factors; oneness and self-sacrifice. These results were cross-validated by an analysis of another 665 highschool students' responses.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AMOS 4.0 also support 2 factor model of PAABS, and the range of split-half reliability test score(.75-.90) was fairly high. The 2nd study examined the concurrent validity and power of predictability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parents-adolescent relationship(e.g. self-concepts, self-esteem, and problem behaviors). For the examination of concurrent validity, sub-factors of PAABS was compared wit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PACI : Barnes & Olson, 1982), and the result showed the resemblance between two scales. And then, multi-variated regression was executed. Results were showed that PAABS was more predictable all the dependent variables than PACI.

Key words :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Cultural psychology, Scale development, Self-concept, Problem behavior

원고접수 : 2003년 10월 23일
심사통과 : 2003년 11월 19일